

보도 일시	2022.1.28.(금) 석간 2021.1.28.(금) 06:00	배포 일시	2021. 1. 27.(목) 15:00
담당 부서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노재욱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2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

- 해수부, 이달의 수산물·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이달의 ①수산물로 대게, 우럭(조피볼락)을, ②해양생물로 물개를, ③등대로 울산광역시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를, ④해양유물로 한선(韓船) 제작도구를, 그리고 ⑤무인도서로 1.5미이터암을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대게, 우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살이 꽉 차오른 대게와 우럭을 선정했다.

대게는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에 살이 차기 시작하는데 1~2월은 속이 꽉 차고 단 맛이 나는 가장 맛있는 시기이다. 주로 통째로 찌서 먹지만, 찜빵이나 라면과 같이 매콤한 국물이 있는 음식에 넣으면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더해져서 풍미가 더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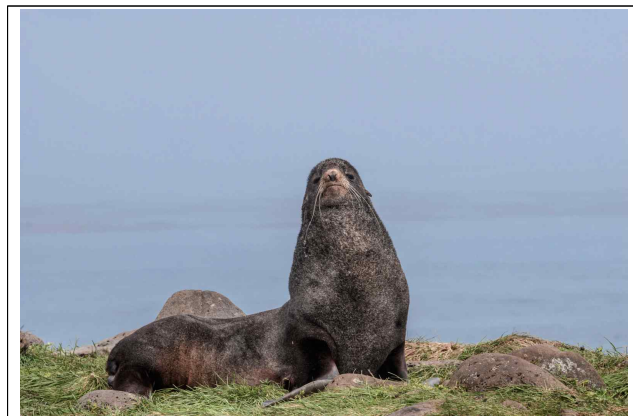
대게는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 함량이 적으며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칼슘, 인이 풍부하여 어린이의 성장발육과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횡감 중 하나인 우럭은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겨울철에 살이 올라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일품이다. 우럭은 니아신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성인들의 치매예방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

우럭은 회 외에도 매운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특히, 밀가루를 묻혀 바삭하게 튀겨낸 통우럭 튀김에 대파, 고추, 양파, 마늘, 깨, 생강청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더하면 그 맛 또한 별미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요즘,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럭과 대게로 만든 음식으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 물개



매년 겨울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물개’를 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아한대종인 물개는 북위 35도 이상인 북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찬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물개는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기각류로 뒷다리가 발달해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지만, 번식기가 아니면 좀처럼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물개는 5월부터 8월까지 베링해 등의 외딴 섬의 바위나 해안에서 번식하고 번식이 끝나면 다시 먼 바다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강원도 및 경북 연안이나 울릉도 등 동해안에서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번식을 마치고 남하한 물개가 관찰된다.

* 바다생활에 적응해 지느러미(지느러미 기, 鰭) 형태의 다리(다리 각, 脚)를 가진 해양동물 (바다사자, 듀공, 강치 등이 이에 해당)

한편, 물개는 겨울철 강원도 연안에서 조업 중인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물개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물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물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기각류 중 혼획 사례가 가장 많은 편으로, 신속한 구조·치료를 위해 혼획 또는 좌초된 물개 등 기각류를 발견한 경우 바로 119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물개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등대 -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



2월 이달의 등대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6초마다 연속으로 2번씩 깜빡이며 동해안을 향해하거나 정자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1991년 8월에 첫 불을 밝힌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는 처음에는 빨간색 원통형 모양으로 세워졌으나, 2010년 12월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울산시와 해양수산부가 귀신고래 모양으로 재탄생시켰다. 해안 바위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사라진다는 귀신고래는 예로부터 포경선이 추격하면 신출귀몰하게 사라지는 바다의 신비한 영물로 알려져 있었다. 귀신고래는 한 때 울산 앞바다에 자주 출몰하였었는데, 19세기 말 무분별한 남획으로 우리나라 연안에는 1977년 1월 울산에서 관측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回遊海面)을 천연기념물 제126호로, 귀신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정자항 주변의 횃집과 현대식으로 지은 활어직판장에서는 참가자미, 방어, 광어 등 싱싱한 해산물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특히 품미가 뛰어난, 2월의 수산물이기도 한 대게도 맛볼 수 있다. 정자항 위쪽의 강동해변을 찾으면 동해에서 흔하지 않은 몽돌해변을 거닐 수 있으며, 해변 끝의 화암마을에서는 화산암류가 지표 근처에서 식으면서 생성된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도 함께 구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송대말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해양유물 - 한선(韓船) 제작도구



근대 | 27.5×21.3cm 등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2010년 박기석 기증

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우리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먹통, 그무개, 먹칼 등 한선 제작도구를 선정했다.

이 한선 제작도구들은 2010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칠 당시 기증된 자료이다. 기증자 박기선씨는 본인이 수집한 조선도구(造船道具)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교육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며 기증하였다.

우리나라 전통 한선은 배를 만들기 적합한 나무를 선별하고 목재를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먹통, 그무개, 먹칼 등을 이용해 목재에 재단선을 그린 후 톱으로 자르고, 자귀를 이용해 목재를 다듬는다. 손질된 재목의 표면은 대패나 낫으로 한번 더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나무를 다듬고 나면 끝, 송곳 등으로 필요한 곳에 구멍을 내고 못과 망치로 나무를 연결한다. 틈이 있는 곳은 톱밥을 넣어 단단하게 하면 한 척의 배가 완성되는 것이다.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조선도구(造船道具), 어민들의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은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유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자료도 포함된다. 대상 유물은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 전적, 미술품과 각종 어업도구, 항해도구, 선박모형, 책, 사진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⑤ 이달의 무인도서 - 1.5미이터암



해양수산부는 2월의 무인도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1.5미이터암을 선정하였다.

이 무인도서는 섬의 높이가 1.5m 정도여서 1.5미이터암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도 해발고도 1m, 폭 7m, 면적 약 50m² 정도인 작은 섬이다. 이 때문에 영해기점임을 표시하는 영해기점 표석도 섬의 육역부가 아닌 인근 송정 해수욕장의 남서쪽 암반에 설치되어 있다.

1.5미이터암은 크기는 작지만,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이다. 1.5미이터암을 기준으로 3해리(약 5.56km)까지가 우리 영해인 것이다. 통상 영해는 영해기점을 직선으로 이은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 해협은 좁은 해역이다보니 서로의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5미이터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5미이터암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노재옥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0-5447)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서기관 김정식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실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실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박희운 (044-200-5355)



2월
이달의 수산물

대게

snow crab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게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을 찌우기 시작해 1, 2월이면 속이 꽉 차는데 이 때 잡히는 대게를 으뜸으로 친다. 대게는 찜으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게가 움직이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몸통 속의 게장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물에 담귀 기절하거나 죽은 것을 확인한 후 찌는 것이 좋다. 집게발은 크게 조각내어 살을 꺼내 먹고 몸통은 게딱지를 떼어내고 안에 들어있는 내장에 밥과 김,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으면 깊은 바다향을 느낄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Calorie)

85 kcal

수분

(Moisture)

79.7 g

지방

(Fat)

1.0 g

단백질

(Protein)

17.4 g

회분

(Ash)

1.4 g

칼슘

(Calcium)

158 mg

인

(Phosphorus)

114 mg

철

(Iron)

0.5 mg

라이신

(lysine)

957 mg

류신

(leucine)

1,031 mg

함황아미노산

(sulfur amino acid)

482 mg

아르기닌

(arginine)

1,617 mg

20220201

2월
이달의 수산물



우럭

Rockfish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우럭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횡감 중 하나다. 우럭은 횡감 외에도 매운탕, 튀김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가 있다. 밀가루 옷을 묻혀 바삭하게 튀겨낸 통우럭 튀김에 대파, 고추, 양파, 마늘, 깨, 설탕, 생강청 등을 넣어 만든 양념장을 부어먹으면 좋다. 평소에 많이 잡히다가도 날씨가 추워지면 여건 변화에 따라 답답할 정도로 입을 열지 않아 울억어(鬱抑魚)라는 이름을 갖게된 우럭(조피볼락)은 겨울철에 먹으면 좋다.

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121 kcal	72.9 g	3.2 g	21.4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2.3 g	34 mg	278 mg	0.5 mg

비타민B3	오메가3	류신	라이신
(niacin)	(Omega-3)	(leucine)	(lysine)
2.6 mg	740 mg	1,612 mg	1,615 mg

20220201

참고 2

최근 5년간 대게, 우럭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게	37,752	31,475	22,506	18,008	17,288
우럭	192	182	108	120	105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2.1.24.기준

□ 수출·수입량

(단위 : \$ / kg)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게	수출	117,352	168,188	110,421	161,992	178,158
	수입	6,844,575	7,434,070	7,311,397	8,390,099	7,767,958
우럭	수출	482,062	1,106,838	1,593,218	1,727,450	1,385,797
	수입	11,731,766	10,691,237	10,091,558	12,309,767	11,496,190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2.1.24.기준

2월 이달의 수산물

임금님께 진상되던
대게, 우럭(조피볼락)
더 알고싶어?



대게

곧게 뻗은 다리가
대나무 같아 붙여진 이름
바다향 머금은 보얀 살은
단맛과 부드러운 감칠맛이 일품
소화 잘되는 저지방 고단백 수산물

우럭(조피볼락)

볼락류 중 가장 많이
양식되는 우럭(조피볼락)
맛도, 육질도, 영양도 만점!
회, 매운탕으로
즐기기 좋은 국민 생선



魚食 어식백세
100세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해양수산부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내셔널
한국판뉴딜

안전한 겨울여행을 꿈꾸는

물개는 바다사자과에 속하는 기각류*이다. 뒷다리가 발달해 육상생활이 가능하여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한다. 수컷과 암컷의 모습이 다른 물개는 그 크기나 몸 색깔로 암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짙은 흑갈색 털을 가진 수컷의 체중은 암컷보다 약 4배로 덩치가 큰 반면, 암컷은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에 밝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 전역에서 관찰되나 겨울철 강원도 연안에서 흔해, 즉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보호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물개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기각류란 바다생활에 적응하도록 지느러미(지느러미 기, 鰭) 형태의 다리(다리 각, 脚)가 발달한 해양동물을 말한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아한대종인 물개는 북위 35도 이상인 북태평양과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찬 바다에 주로 분포한다. 번식기가 아니면 좀처럼 육지로 올라오지 않는 물개는 5월부터 8월까지 베링해 등의 외딴섬의 바위나 해안에서 번식하고, 번식이 끝나면 다시 먼 바다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에서 번식을 마친 물개는 겨울과 봄에 남하하여 우리나라 강원도 및 경북 연안이나 울릉도 등에서 종종 관찰된다.



물개 우리가 보호해야 할

Callorhinus ursinus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2022년
02월
이달의 등대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청정해양

정자항 등대가 된 귀신고래 북방파제등대

정자항북방파제등대

정자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에 위치하며 1971년 12월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울산 북구 12경 중 하나인 '귀신고래 등대'는 정자항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양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달의 등대로는 정자항북방파제등대가 선정되었다.

정자항을 비롯한 울산 부근 동해안(울산 귀신고래 화유해안)은 고래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로, 1962년 12월부터 천연기념물 제126호로 지정 관리되는 곳이다. 귀신고래는 해안에서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귀신같이 사라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쇠고래' 또는 '회색 고래'라고도 불린다.

정자항북방파제등대는 1991년 8월 빨간색 원통형으로 세워졌으나, 정자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제적 보호 대상 동물인 귀신고래를 알리기 위해 2010년 12월 재탄생하였다.

정자항 주변의 횡집과 현대식으로 지은 활어직판장에서는 참가자미, 방어, 광어 등 싱싱한 해산물을만 아니라 겨울철에 특히 몸기가 뛰어난 정자대게도 맛볼 수 있다. 정자항 위쪽의 강동해변을 찾으면 동해에서 흔하지 않은 풍동해변을 거닐 수 있으며, 해변 끝의 화암마을에서는 화산암류가 지표 근처에서 식으면서 생성된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도 함께 구경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

- 강동 사랑길&누리길
- 강동 추상절리
- 강동 몽돌해변
- 활안송, 유포석보

주변 먹거리_참가자미, 대게

울산 바닷가에서는 참가자미를 따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이 지역은 참가자미의 최대 집산지이다. 차가운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으로 육질이 쫄깃하여 곱게 뜯 참가자미회는 최고의 맛을 선사하며 탕, 찜, 회 등으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만능 생선이다.

또한, 정자항에서는 대게가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는다. 곧게 뻗은 게의 다리가 대나무처럼 울퉁고 하여 대게로 불리며, 12월부터 4월 초순까지 가장 맛있는 계절이다. 고소한 계실을 먹고 게딱지에 내장과 발, 참기름 등을 넣어 비빈 게딱지밥을 먹어보길 추천한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2.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2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2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번째마다 등대스탬프를 찍은 참여자와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2019~2021 시리즈도 참여 가능!

-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2월

한선韓船 제작 도구



근대 | ① 19.3×7.6cm, ② 27.5×21.3cm, ③ 23.0×1.8cm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2010년 박기석 기증

이달의 해양유물은 우리나라 전통 배인 한선(韓船)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작도구들로 먹통, 그무개, 먹칼이다.

- ① 먹통은 먹을 담아 사용하는 도구로, 먹이 묻은 먹줄타래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 목재에 재단선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먹통은 파배기 모양의 머리 부분에 홈을 파서 먹줄타래를 끼워 넣고, 몸체 부분에 먹을 담을 수 있도록 둥근 구멍을 뚫어 놓았다. ② 목공 작업에 필수품인 그무개는 정교하게 선을 그을 때 사용한다. 이 그무개의 고정쇄 부분은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고, 물고기의 배 부분에 구멍을 뚫어 날을 연결한 형태이다. ③ 대나무 먹칼은 목재에 짧은 선을 긋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한다. 이 먹칼은 한쪽을 얇고 뾰족하게, 다른 한쪽은 넓고 편평하게 만들었다.

이 한선 제작도구들은 2010년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칠 당시 기증된 자료이다. 기증자는 본인의 소장품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면 기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각종 조선도구(造船道具), 어민들의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사라져 가는 다양한 해양 자료를 기증받는다.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해양수산부
바다나온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영토의 시작, 생태와 경관의 보고
무인도서
2022년 02월
이달의 무인도서



송정동, 송정동, 부산광역시, 1.5미터암, 구덕동, 청사포항, 815

남동쪽 영해의 시작, 1.5미터암

2022년 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1.5미터암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영해 기점 무인도서이다.

섬의 지명은, 섬의 높이가 1.5m 정도라는 데에서 유래되었으며, 1.5미터암은 실제로도 해발고도 1m, 폭 7m 내외, 면적 약 50㎡ 정도인 작은 섬이다. 이 때문에 영해기점임을 표시하는 영해기점 표식은 섬의 육역부가 아닌 인근 송정해수욕장의 남서쪽 암반에 설치되어 있다.

1.5미터암과 인근 남서쪽 고석초에는 각각 등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먼저 설치된 1.5미터암의 등표를 구등[※], 고석초에 위치한 등표를 신등[※]이라고 부른다.

1.5미터암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작은 바위섬(시스템, sea stack) 형태로 흩어져 있다. 고도가 낮아 육상식물은 서식하지 않지만, 인근 해역에는 다양한 해안무척추동물과 해조류가 서식한다. 대표적인 해안무척추동물은 거북손, 고령파개비, 조우래기파개비, 검은큰파개비 등이 있고, 해조류는 파래, 톳, 미역, 작은구슬산호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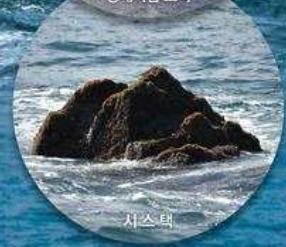
1.5미터암은 크기는 작지만,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기준점이 되는 영해 기점 무인도서이다. 일반적인 영해의 기준은 최외곽 무인도서를 직선으로 이은 가상의 선(직선기선)으로 부터 12해리까지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대한해협은 좁은 해역이라, 1.5미터암을 기준으로 3해리(약 5.56km)까지를 우리 영해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는 1.5미터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2022년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5미터암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해기점 표식



시스템

<http://www.mof.go.kr> | <http://blog.naver.com/koreamof> | www.facebook.com/pg/mofkor/photos